

넘에 관해서도, 그분의 악행을 비난하기는커녕, 하느님께
그런 악행을 저지른 자기 이모님을 용서해달라고 빌어주
었고, 그 지독한 정신착란도 진정시켜 달라고 기도했지.
우리가 알기로는 것처럼 비인간적으로 비르지니를 되돌려
보내자마자 바로 착란에 시달렸다고 하더군.

그 몹쓸 친척도, 자기가 저지른 악독한 짓을 향한 응징
에서 멀리 달아나지는 못했네. 여러 척의 배가 연달아 내
항하면서, 나는 그녀가 우울증에 사로잡혀 정신이 나갔고,
그것 때문에 사나 죽으나 매한가지로 고역이 되어버렸다는
소식을 들었네. 때로 그 이모님은 귀여운 종손녀가 요절한
것도, 그 뒤를 따라 어미가 숨을 거둔 것도 자기 탓이라며
스스로를 책망했네. 또 때로는, 본인 말에 따르면, 천한
기질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던 두 불길한 여자를 자신으
로부터 밀쳐낸 것에 대해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했어. 이따
금 파리를 가득 매운 빈민들의 엄청난 머릿수를 보고 부야
가 치밀어 올라 “도대체 왜 이 게으른 물건들을 식민지로
내보내 죽게 내버려두지 않는 거지?” 라며 고함을 지르고는
덧붙이길, 모든 민족이 채택한 인간성이니, 덕성이니, 종교
니 하는 사상들은 그 민족의 왕들이 정책적으로 발명한 것
에 불과하다고도 했네.

또 그러다 갑자기 반대편 극단으로 치달으면서, 미신적인
공포에 빠져들더니,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곤
했지. 그 이모님은 자기를 지도해주던 유복한 수도승들에게